

서울대 합격 기쁨은 잠시 입학금 없어 눈물짓는 소녀

■ 서울대 수시합격 승덕고 임동준

“우리나라 농부들이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접한 뒤 식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질 좋고 값싼 종자를 개발해 수출도 하고, 농부들에게 도움도 주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잠시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2010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식물생산자원학부에 합격한 임동준(승덕고 3년)양은 학계의 기쁨도 잊은 채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저소득층 학생인 임양은 최근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15일까지 마감인 예비 등록금 16만 9천원마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임양은 지난달 치러진 서울대 2

차 구술면접 시험 때도 왕복 교통비와 숙박비가 없어 학교 진학실장인 한철민 교사의 도움으로 겨우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아빠 투병에 집 암류…쫓겨날 처지 예비등록금 마저 없어 발만 동동 “식물학자 되어 농민들 돋는게 꿈”

고교 3년 내내 버스비가 없어 무료 청강을 제안받았던 학원도 못 달릴 정도의 어려움마저 벼텨왔던 임양이지만, 이번 서울대 진학만큼은 혼자 의 힘으로 넘기엔 힘든 장벽이다.

생활비는 빼놓더라도 학비에 기

숙사비 등만 계산해도 매년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양의 진학의지는 확고하다. 임양은 “학비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되고, 기숙사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합격한 임동준(승덕고)양이 14일 광주 보훈병원에서 간경화와 당뇨 등으로 투병중인 아버지 임관수씨를 병간호 하고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을 대표하는 밸레리나였다. 그러나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 임관수(57)씨가 간경화로 쓰러지면서 그 꿈은 ‘꿈’으로 끝이 났다. 아버지의 사업 부도 이후 집안 형편은 급격하게 기울었고, 임양의 어머니는 식당일 등을 전전하며 병원비를 대고, 임양과 임양의 오빠를 키워내야 했다.

임양 가족의 악몽은 현재 진행형이다. 집은 암류돼 언제 쫓겨날 지 모르고, 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서 간 경화와 당뇨 등에 맞서 투병중이다.

14일 광주 보훈병원에서 만난 임

양의 아버지는 딸의 서울대 합격 소감을 물어, 만감이 교차하는 듯 얼굴엔 함박웃음을, 눈에선 눈물을 쏟아냈다. 임씨는 “딸의 합격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집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면서도 “학비를 걱정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울먹혔다.

‘좌절’이란 단어를 가장 싫어한다는 임양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고 울해가 안되면 내년에, 내년에도 안되면 그 다음해에, 꼭 식물학자의 꿈을 이뤄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문계고 졸업반 “우린 초임 연봉 3천만원”

광주 전문계고 올 424명 대기업 취업

“불황속 취업대란 뚫는 ‘블루오션’이죠”

“수능이 끝난 친구들이 저를 무척 부러워해요. 대학을 졸업해도 저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잖아요”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광주여상) 3학년 오로리양에게 대학입시는 남의 나라 얘기다.

요즘 일반계고에 다니는 친구들은

수능이 끝난 이후 지원할 대학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오로리양에겐 낫신 모습이다.

로리양은 지난 8월 신한금융투자에 입사해 현재 전주지점에서 연수중이다. 로리양은 내년 3월부터 정식직원이 되는데 약속받은 초임연봉만 3

천만원이 넘는다.

중학교때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로리양은 일반계고에 진학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뿌리치고, 과감하게 전문계고를 선택했다. 로리양은 “남들과 똑같이 대학에 가 취업을 고민하는 삶이 싫어 선택한 걸”이라고 말했다.

승의고 3학년 김은철군도 최근 광주 삼성전자에 취업해 첫 월급으로 180여만원(실수령액)을 받았다. 김군은 “열심히 일해 삼성전자의 공장장이 되는 게 목표”라며 활짝 웃었다.

대출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계고를 선택해 고소득 직종에 취업한 고 3생들이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여성은 10월 현재 361명의 예비 졸업생 중 121명(33.5%)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중 87명은 초임연봉이 2천 500만원~3천만원대인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우증권, 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을 비롯한 삼성, LG 등 대기업에 취업했다.

전남여성상도 올해 예비졸업생 367명 중 63명이 대기업에 취업했으며, 광주전자공고 65명, 광주공고 46명, 송원여성 27명 등 광주지역 13개 전문계고에서 424명이 대기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1천138명이 ‘알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등 전문계고 4천640명의 예비 졸업생 중 1천562명(33.7%)이 취업했다. 이는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이다.

박병철 시 교육청 과학기술정보화과장은 “전문계고는 취업 대란을 뚫을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전문계고의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기간은 14일부터 17일까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롭 07시 33분 해진 17시 22분

달롭 06시 22분 달진 16시 08분

눈이 오려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광주	흐림	-1/3C
목포	흐림	0/3C
여수	흐림	4/6C
완도	흐림	0/4C
구례	흐림	-3/4C
해남	흐림	-1/4C
장흥	흐림	-1/4C
고흥	흐림	1/6C
순천	흐림	0/5C
영광	흐림	-3/2C
진도	흐림	0/4C
전주	흐림	-3/2C
남원	흐림	-5/2C
흑산도	흐림	4/4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서해 남부 일비다	북~북동	1.0~1.5m	동파지수 뇌출증지수
남해 서부 일비다	북~북동	1.0~1.5m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일비다	북~북동	1.0~2.0m	목포 00:43 06:08
남해 서부 일비다	북~북동	1.5~2.5m	13:40 18: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씨

최저/최고 -4/2 -4/2 -5/1 -4/2 -4/3 -2/5

교가 많아 1곳을 추가했다.

자율형 공립고는 교육과정 평성화 운영, 교원임용 등 자율성이 보장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펼 수 있다.

학생 선발은 광역 단위로 선거원 후주첨 방식이며 필기고사는 없다. 국민 공통 기본교과는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증감 운영하고 선택 중심 기본교과는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100%까지 초빙교원으로 채울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유자비 각진 둑!
겨울엔 세균 걱정 둑!

【휘센 인버터 냉난방기】
11년간 사용하신 450년짜리 냉난방기입니다!

WHISEN 시스템에어컨

WHISEN 구입 문의처 시스템전문점 호남